

남원시, 관광객 500만 목표

여행플래너 시스템 운영 관광택시 육성·여행업체 인센티브·중국 염성시 수학여행단 유치 등 추진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10일 주요 현안에 관한 목요토론을 통해 자생력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원체계의 혁신을 통해 금년 중 500만 관광객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분야 혁신 현안보고를 통해 유세환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사의 근무연한 65세 하향, 남원의 전란사(戰亂史)와 혼불문화 전문프로그램 해설사 배치 그리고 맞춤형 관광 서비스인 여행플래너 시스템 운영과 관광택시 육성으로 남원관광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 여행단과 일차 여행객의 유치를 협조한 여행업체들에게는 연 말 실적평가로 통해 상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염성시 교육 투여단을 초청하여 수학여행단 유



남원 관광열차 여행객들

치를 위한 남원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6월에는 남원시 대표단이 염성시를 방문하여 전통혼례식, 한복 패션쇼, 우정의 음악회 등 내실 있고 역동적인 남원관광 홍보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승월교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갖춘 문화공간 노을마루로 변모시켜 나가고, 춘향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에 어울리는 이름

으로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평을 통해 이환주 시장은 중국 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이를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가야 하며, 신관사또 홍보단의 대도시 행사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플래시몹 등 특색 있는 홍보기법은 차별화된 관광지로서의 남원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후계농업경영인 38명 선정

군, 최대 2억 창업자금·경영교육·컨설팅 등 지원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38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올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요령과 융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군에서는 1981년부터 1682명에 달하는 후계농을 선정·지원해 왔다.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38명에게는 총 70여 억원의 융자금과 함께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농업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령화된 농촌에 후계농업경영인이 미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창군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건강한 식생활 체험 실습관 만든다

건강장수연구 특구내 착공 1층 조리 실습실·테라스 2층 카페형 휴식공간

순창군이 건강한 식생활 체험을 통해 만성질환도 예방하고 관광도 즐기는 신개념 식생활 실습관을 만든다. 군은 최근 순창건강장수연구 특구내에 식생활 실습관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군이 조성하는 식생활 실습관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건강디저트 및 에피타이저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에 착공한 식생활 실습관은 지상 2층에 연면적 280㎡ 규모다. 1층에는 건강식생활 요리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조리 실습실과 야외 테라스가 들어선다. 2층에서 디저트와 커피 등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형 휴식 공간도 만들어진다. 군은 이번 식생활 실습관이 만들어지면 노후준비 교육 등 건강장수 연구소를 찾는 교육생이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군이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순창 식문화체험관 조감도

예방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진행할 프로그램 구성도 이미 선별해 들어갔다. 군은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디저트 클래스, 혈당을 낮추는 당뇨 디저트, 부부 연인들을 위한 디저트 클래스,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건강요리 원데이 클래스 등을 구성 중이다. 각 클래스마다 편식예방 곡물쿠키, 고들빼기 현미떡, 블루베리 마카롱,

계절별 디저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승주 군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교육생은 물론 군민들도 건강식생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순창건강장수 연구소 일원을 힐(SHIL: Suncheon Health Institute Longevity)랜드란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하고 힐워터공원, 편백나무 수국길, 의농업 전시관, 삼림욕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김수창 기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모집

임실군, 25일까지 접수

임실군이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지역 내 학생들의 외국어 향상과 문화체험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2명 등 총 29명(대학생 별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중국 현지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은 영어권 60%, 중국권 80%의 연수경비를 지원받으며, 오는 25일까지 서류접수 후 연수계획서, 성적확인서 등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해외연수를 통해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와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행정지원과(☎063-640-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특이점

임실군, 건설사업 상반기 조기발주

임실군이 잠재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발주에 나섰다. 군은 군도, 농어촌도로 및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건설사업 414건 215억원에 대해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65% 이상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영농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확포장공사 8개소,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75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개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25건에 대해 지난 2월초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미리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건설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사업설명회

임실군이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서 2016년 드림스타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인 12일에 열린 설명회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부모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성과를 비롯해 2016년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준수사항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군은 금년에 아동들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및 가족단위체험 디너와,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진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 위기도 측정결과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취기도 측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만5세(임실부)~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하이웨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드림스타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644-3001)으로 문의하면 위기도 측정조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국비확보 총력 경주

중앙부처 방문 지원 적극 건의

남원시가 2017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등 2017년 국가예산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먼저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정호 차관을 만나 전라북도의 관광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며 국비변영을 요구했다. 앞으로 시는 전라북도와 긴

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악철도 도입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부내륙권 정읍~남원 국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국지도 37호선인월~이영도로 개설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단계인 코스메틱컨버전센터 건립사업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다. 그동안 시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시는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100대 사업에 1,285억원의 국비를 요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FE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고창군이 지역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탄탄한 지역안보 구축을 위한 2016년 독수리(Foal Eagle : FE) 연습에 돌입했다. FE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며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는 1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E연습 실시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FE연습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대남 도발 정황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연습 지원을 위한 군과 각 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부대의 군사비태세 평가 및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박우정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장은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을 계기로 민·관·군·경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도록 통합방위체제 및 역량을 더욱 굳건히 확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창군에서는 지난 14일 군청 1층에서 대대러훈련이 실시됐다. 대대러훈련은 신원미장지에 의한 고창군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에 따라 고창경찰서 강력팀과 정보분석팀, 8098부대 5분 대기부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현장보존조치 및 폭발물 제거,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지원본부 전개과정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